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4명 중 주일미사 189명 참례 / 참례율 : 26.47%

SEONGSAN
CATHOLIC
CHURCH

평일미사	토 (5/16)	월 (5/18)	화 (5/19) 내촌 / 본당	수 (5/20) 본당 / 송정	목 (5/21) 송정 / 본당	금 (5/22) 본당 / 역내
	12명	10명	14명 / 18명	14명 / 10명	9명 / 22명	14명 / 8명
주일미사 (5/17)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2명	25명	27명	31명	65명	19명



우리들의 정성 주님 승천 대축일

SEONGSAN
CATHOLIC
CHURCH

주일 헌금	1,277,000	교무금	1,085,000	감사 헌금	200,000
양성, 복지, 원로	139,000	미래 기금	128,000		

교무금 함연하, 청안건설, 사정애, 최용범, 최정화, 이종석, 강인식, 김도형, 김태호, 김정자, 김남수, 노양호, 안영재, 권일용, 윤정숙, 최인순, 신정희, 강민정, 신현수, 손삼술, 강호석, 권선화, 박영수, 이효순, 김석기

감사헌금 사정애(수산나) 2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5월 22일 기준

SEONGSAN
CATHOLIC
CHURCH

	구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303,000	6,931,000
	약정 기부	2,500,000	109,110,000
	2차 헌금		4,346,950
	기타 수입		17,496,589
	타본당 후원		2,602,000
	합계	2,803,000	140,486,539
	지출	설계비	41,570
모금 준비비			4,400
합계		41,570	45,970
현 잔액		807,288,485	

약정기부 126세대 167,140,000원 중 109,110,000원 납부 (납부율 65.28%)

권일용, 김석기, 제이에스엠코퍼레이션, 하랑물류, 최정화, 박인옥

지출 설계 설명회 준비



본당 설립 50주년 전신자 성지순례

일정 및 성지 안내

성지 소개 - 배티 성지

배티성지는 한국 천주교 대표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 최양업 신부님과 선교사들의 사목 중심지, 둘째, 조선대목구 최초의 신학교, 셋째, 복자 오반지 바오로와 무명 순교자들의 안식처, 넷째, 박해 시대 비밀 교우촌.

배티는 ‘배나무 고개’ 라는 뜻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경기도 안성으로 넘어가는 이곳의 고개 주변에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배티성지는 안성 칠장산에서 시작하여 태안반도 지령산으로 이어지는 금북정맥의 서운산(547m)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백곡천이 시작되는 배티고개 아래에 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충청도 진천현 백곡면에 속해 있던 이곳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던 오지인 데다가 충청좌도와 우도, 경기도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어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던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살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 정확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 배티 일대의 산간지대로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들기 시작한 것은 1801년의 신유박해 이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박해가 계속되면서 신자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1830년대 초에 와서는 믿음살이를 영위하는 신자들이 거주하는 안전하고 훌륭한 교우촌들이 산재하게 되었습니다. 1837년 5월에는 모방(나베드로) 성인 신부님이 배티 교우촌을 공소로 설정하였습니다. 당시 교회 밀사로 활동하던 김 프란치스코의 집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수원 느리지(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가 고향인 복자 장 토마스, 충주 출신인 복자 송 베네딕토 가족 등이 배티 교우촌으로 이주해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1850년에는 다블뤼(안 안토니오) 성인 신부님(1857년에 주교 서품)이 조선대목구 신학교를 설립한 뒤 배티 교우촌에 두 칸짜리 초가집을 매입하여 학교 건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초가집은 성당 겸 사제관이자 신학생들의 기숙사 역할도 했습니다. 1853년 여름부터는 최양업 신부님이 이 초가집에 살면서 전국 다섯 개 도에 흩어져 있는 교우촌을 순방하는 한편 틈틈이 신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배티 교우촌을 자신의 본당 중심지로 삼은 기간은 대략 3년 동안이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에 이어 배티 교우촌을 방문한 사제는 메스트르(이 요셉) 신부님과 페롱(권 스타니스라오) 신부님이었습니다. 특히 순교자 프티니콜라(박 미카엘) 신부님은 1858년 10월부터 배티 교우촌을 자신의 사목 활동 거점으로 정하고 이곳에 있는 초가집을 성당 겸 사제관으로 삼았습니다. 다블뤼 주교님이 배티 교우촌에 와서 견진성사를 집전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발생한 뒤에는 경상도 지역을 순방하던 칼래(강 니콜라오) 신부님이 배티 이웃의 삼박골 교우촌(현 백곡면 용덕리)으로 피신해 와서 보름 낚짓 머물며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집전하다가 소학골(현 천안시 북면 납안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된 박해 때 배티와 인근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우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합니다.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순교자만 34명입니다. 그중에서 배티 출신의 장 토마스 등 8명은 지난 2014년 8월 16일에 시복되었습니다.

박해가 끝난 뒤 배티 마을은 다시 교우촌으로 재건되었고, 1888년에는 공소로 재설정되었습니다. 1893년에는 이곳에 교리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웃 용진골(현 백곡면 용덕리)에서는 윤의병(바오로) 신부가 성소의 꿈을 키웠습니다. 또 그때부터 이곳 천주학생이 묘지기들은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을 돌보면서 신앙선조들의 참신앙을 이어받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배티 교우촌이 성지로 가꾸어지기 시작한 것은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1977년부터였습니다.



일정 안내

시간	일정	비고
07:30-08:00	성당 집합 및 순례 출발 전 축복 예식	성당
08:00-10:30	배티성지로 이동	버스 2대, 승합차 2대
10:30-11:00	미사 준비 및 고해성사	대성당(선종기념성당)
11:00-12:00	미사	대성당(선종기념성당)
12:00-13:00	점심 식사	식당
13:00-14:30	성지 순례	순례 코스 참조
14:30-15:00	성당 집합 및 돌아오는 순례자 축복 예식	대성당(선종기념성당)
15:00-17:30	본당으로 이동	기도 후 해산

순례 코스

1코스: 대성당 (300m) 탄생기념성당 (30m) 십자가의 길 (210m) 산상제대 (80m) 큰손성모님상

총 걷는 거리는 왕복 1.2km 정도이며, 1코스는 식사 후 탄생기념성당으로 이동하여 순례한 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산상제대에서 개인 기도 후 다시 대성당으로 내려옵니다.

2코스: 대성당 (200m) 최양업 신부님 박물관 (380m) 최양업 신부님 옛 성당, 신학교

2코스는 식사 후 최양업 신부님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박물관 관람 후 최양업 신부님 옛 성당으로 이동하여 순례를 마치고 대성당으로 돌아옵니다.

3코스: 대성당 (1.2km)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소 (150m) 14일 무명순교자 묘소 (600m, 급경사) 6인 무명순교자 묘소

식사 후 본당 승합차를 이용하여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소로 이동합니다. 이후 14인 무명 순교자 묘소와 6인 무명순교자 묘소를 순례합니다. 차량 이동 1.2km 외에 총 걷는 거리는 왕복 1.5km 이며, 14인 무명 순교자 묘소부터 6인 무명순교자 묘소까지의 600m 구간은 급경사입니다.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소에서 차량을 통해 다시 대성당으로 돌아옵니다.

각자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세 코스 중 한 코스를 선택하셔서 순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순례 코스에서도 상황에 따라 탄생기념성당이나 박물관 등에서 시간을 보내셔도 됩니다. 본당 승합차 2대가 있으므로 비상시나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경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